올 모내기 한달 빨라졌다

전남도, 햅쌀시장 선점 위해 조기 모내기 독려

수확 예년보다 50여일 빨라져 홍수출하 줄 듯

전남지역 모내기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가까이 앞당겨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햅쌀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조기(早期) 모내기'를 독려해 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쌀 재배면적 18만5천ha중 6.5%인 1만1천993ha의 모내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

이는 조기 모내기가 가능한 1모작 논(가을작물이나 보리 등을 심지 않은 논) 8만2천600여 ha의 14.5%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 5월 23일을 전후해 실시하던 모내기를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마쳤다. 따라서 햅쌀 수확도 예년보다 50여일 빨라진 8월20일께 부터 가능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1천250ha로 가장 많았으며 ▲강진 1천182ha ▲해남 1천10ha ▲장흥 950ha ▲영광 912ha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조기 모내기를 독려한 것은 경기나 강원지역 보다 한달 이상 빨리 수확해 보다 비싼 가격에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햅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또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9월 중·하순에 발생하는 벼멸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지역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95%가량이 중·만생종으로 10월 하순에 수확해 11월부터 홍수출하가 이뤄져 판로 확보와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수확 시기를 앞당겨 햅쌀시장을 선점할 경우 수도권 소비자들을 지속적인 고객으로 만들어 판로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뱁새'의 자식 사랑 우리나라 대표 텃새인 '붉은머리 오목눈이(일명 뱁새)' 어미새가 함평군 대동면 고산봉 자락에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참새목 딱새과인 이 새는 4~7월까지 주로 관목과 덤불, 풀밭 등지에서 20~30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한다. 〈함평군 제공〉

송호해수욕장 모래 유실 부두·양식장 축조가 원인

해남군 연구용역 결과

울창한 송림 등 서남해 유명 해수욕장 중의 하나인 해남 송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원인이 규명됐다.

해남군은 "목포대 갯벌연구소에 의뢰한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모래 유실의 대표적인 원인은 부두 및 축제식 양식장(송지 갈산) 축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유입 하천 복개도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을 감소시킨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번 용역 결과 송호해수욕장에서 지난 1년간 유실된 모래의 양은 961㎥이며 백사장 모래 두께의 0.8㎝ 정도가 유실됐고 북서계절풍에 의해 강한 파랑이 이는 12월에서 2월까지 집중적으로 모래 유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연구소 관계자는 "모래 유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으로 모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터주고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의 원상을 회복하는 한편 겨울철 해수욕장 앞에 해태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욕장 모래 유실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땅끝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울창한 송림과 함께 백사장 길이가 650m(너비 200m)로 연간 20만명이 찾는 서남해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나주 금성관 화재 신속 진화 피해는 없어

지난 2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나주지역 대표적 목조 건축물로 국가사적 483호인 나주 금성관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화재는 최근 복원공사가 마무리된 금성관내 동익헌의 습기 제거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마루 밑이 그을리고 일부 목조 건축물에 불이 붙어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자체 진화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앞으로 문화재 보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원된 동익헌은 나주시에서 영빈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담양 대전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1,174㎡ 규모…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제공

담양 대전농협(조합장 이재곤)은 지난 23일 이영배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과 조합원, 송범근·강종문 도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면 대치리에서 하나로마트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하나로마트는 1천174㎡(355평) 규모의 매장으로, 소비자들에게 담양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하게 된다. 특히 북광주 IC와 연결되는 지역에 위치해 광주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재곤 조합장은 "인근 식당과 계약을 체결, 소비자들이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신선한 축산물을 바로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화순실고 기능인력 양성 명문 도약

산학협력 전문계고에 선정

기아차 등 7곳과 협력체제

'비즈쿨 학교' 3년째 운영

화순 실업고등학교(교장 김기윤)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명문 전문계 고등학교로 도약하고 있다.

화순 실업고는 지난 2006년 전남·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육과학부·노동부·산업자원부 주관의 산학협력 우수 전문계고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산업자원부 주관 특성화고로 전환함에 따라 3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화순 실업고는 자동차 산업분야의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등 7개 회사 및 순천대 등 4개 대학과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모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 3년째 '비즈쿨(Bizcool)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비즈쿨'이란 비즈니스 (Business)와 학교(school)를 합성한 단어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사업능력을 교육하는 준비된 예비 창업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운주웰빙몰 외 3개의 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 전원이 비즈쿨 이론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지석강변에 '엄마야 누나야' 노래碑

곡 붙인 남평 출신 안성현씨 기려

나주시, 수변공원 등도 함께 조성

나주 지석강변에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가 건립된다.

나주시는 24일 "일제 강점기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월북 음악가 안성현(1920-2006)씨를 기리는 노래비를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엄마야 누나야 노래연구회' 등은 안씨의 고향인 남평읍 지석강 모래밭에 3천만원을 들여 오는 10월말까지 노래비를 세우기로 했다.

노래비가 세워질 곳은 지석강 치수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백사장, 산책로, 수변공원 등이 함께 조성된다.

시는 올초 시정보고회 자리에서 안씨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은 뒤 예산 확보 등 노래비 건립에 본격 나섰다.

일본 도쿄(東京) 동방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뒤 광주사범학교, 조선대, 전남여고 등에서 교편을 잡은 안씨는 호남지역에서 왕성한 음악활동을 폈으며 부용산, 진달래, 내고향 등 민족의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다수의 노래를 작곡했다.

특히 안씨가 목포 항도여중에서 근무하던 1948년에 작곡, 호남에서 특히 애창됐던 '부용산'은 월북 인사가 작곡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곡으로 묶이기도 했다.

무용가 최승희씨 남편의 조카이기도 한 안씨는 6·25전쟁 당시 최씨와 함께 월북, 그동안 북한에서 행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006년 4월 86세로 타계한 사실이 알려진 뒤 재조명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강진군 우수 중학생 선발

2개월 유학 보내기로

강진군이 강진중 등 관내 8개교에서 우수 중학생을 선발, 미국과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에 2개월 과정의 단기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

유학 대상 중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군 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고사를 거쳐 선발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미국 스노콜미시와 상호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했으며 필리핀의 밤반시와도 단기 유학에 대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

연수비용은 군이 90%를 부담하며 해당 학생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 군민장학재단을 설립, 100억원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등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 활성화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